

북핵의 군사적 활용 시 예상되는 북한의 핵전략 분석: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의 방정식 활용

박휘락*

- I. 서론
- II. 전략과 핵전략에 대한 이론적 배경
- III. 북한의 핵전략 목표와 수단의 평가
- IV. 북한의 핵전략
- V. 결론

요약

본 논문은 대륙간탄도탄 개발을 비롯하여 핵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 어떤 핵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목표 = 방법 + 수단”이라는 전략의 방정식을 사용하였고, 이 중에서 ‘목표’와 ‘수단’을 대입하여 핵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인 ‘방법’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가 ‘전 한반도 공산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북한 핵전략의 ‘목표’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북한이 개발한 13-30의 핵무기나 앞으로의 지속적인 증강, 미 본토 공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같은 ‘수단’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핵전략은 미국에 대해서는 “신뢰적 최소억제전략,”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의 “위협과 제한적 사용”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위협 하에 제한적 또는 전면적 재래식 전쟁을 도발할 수도 있고, 평시부터 핵위협으로 한국에게 어떤 양보를 강요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주요 도시에 대규모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구비함에 따라 이와 같은 공격적 사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핵심어: 북한, 북한핵, 북핵, 핵전략, 북한핵전략, 북핵미사일, 확장억제

* 국민대학교 부교수

I. 서론

북한은 오랫동안의 노력을 통하여 상당한 숫자의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그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7년에 들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급기야 2017년 9월 3일에는 수소폭탄 시험, 그리고 11월 29일에는 ICBM 시험발사를 실시하여 미 본토 타격을 위한 잠재력을 과시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은 실제적 상황이 되었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동요시키고 있다.

북한은 생존을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2월 13일 제3차 핵실험에 성공한 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의 제1조는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 핵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¹⁾ 한국 국민들도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체제유지, 미국 압박, 경제지원, 내부결속 등의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²⁾ 핵무기는 워낙 위력이 큰 무기라서 사용을 상상하기 어렵고, 따라서 북한도 군사적 용도보다는 위와 같은 정치적 의도에 근거하여 개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위력이 크기는 하지만 핵무기도 ‘무기’의 하나이고, 따라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처음에는 정치적 의도로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하고, 현재 남북한은 북한이 도발한 6.25전쟁의 휴전상태로 비무장지대에서 서로의 대규모 군대가 일촉즉발의 상태로 대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면서 남한 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7년 8월 25일 백령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지도하면서 김정은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한다”고 지시하였고, 9월 6일 평양에서 개최된 수소폭탄 성공 경축행사에서 오금철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반의 결전 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이라는 최악의 사태 즉 북한이 어떤 형태로 그들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보야 하는 상황이다.

1) 권태영 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서울: 북코리아, 2014), p. 192.

2)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6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서울: 국방대학교, 2016), p. 18.

북한의 핵전략을 파악할 경우 문헌자료를 통하여 북한의 다양한 주장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제 정책과 선언정책(declaratory policy)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북한과 같이 선전선동을 중시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외부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소 단순하긴 하지만 “전략(Stratgy) = 목표(Ends) + 방법(Way) + 수단(Means)”이라는 방정식³⁾을 활용해 보고자 한다. ‘목표’와 ‘수단’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고, 그에 근거하여 ‘방법’을 유추하면 북한 핵전략의 개략적인 방향은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의 발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핵전략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최소한 북한의 선전선동에 좌우되지 않을 수는 있고, 세부적인 설명은 어렵더라도 개략적인 방향은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도는 바뀌지만 능력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핵전략’이라는 용어는 빈번하게 사용되었지만, 북한의 핵개발 성공 이전에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핵무기의 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발의 방향을 추정하는 내용이었다.⁴⁾ 다만, 2013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핵운용전략’이라는 명칭으로 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⁵⁾ 그러나 이들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억제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북한 핵전략의 필요충분 내용은 아니었다. 함형필과 최정민, 그리고 김태현이 최소억제전략(minimum deterrence strategy)에 대한 이론을 북한에 적용하여 다소 심층깊은 핵전략을 탐색했지만,⁶⁾ 역시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았고, 특히 북한이 ICBM 개발이 치중하기 이전의 연구라서 절박성이 크지 못했다. 이제는 수소폭탄과 ICBM을 결합하여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고, 북한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을 대상으로 그들의 핵전략을 새롭게 유추해봐야 한다.

3) Arthru F. Lykke, Jr..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 (Carlisle: Army War College, 2001), p. 179.

4) 이승철·오일환. “북한의 핵전략 분석과 한국의 대북,대중,대러 전략 방향 모색,” 『중소연구』 제29권, 4호 (2006), pp. 15-50; 이현경. “북한의 핵전략과 북,미간 타협: 원론적 타결과 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권 2호 (2005), pp. 221-241; 우승지. “2.13합의 이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에 대한 분석.” 『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제1호(2007), pp. 235-257; 이계만·윤항. “북한의 핵문제 본질과 핵전략·외교전략에 관한 평가.” 『평화학연구』 8권 3호(2007), pp. 325-358.

5)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104권, 0호 (2014), pp. 155-196; 김성철. “북한의 핵억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4호 (2014), pp. 121-144.

6)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84권 0호 (2009), pp. 91-120; 최정민. “북한 핵 억제전략 연구를 통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향 제시.” 『군사논단』 제77호(2014년 봄), pp. 11-40. 김태현. “북한의 핵전략: 적극적 실존억제.”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pp. 5-3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핵전략 ‘목표’를 파악하고, 북한의 현 핵능력(‘수단’)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어떤 ‘방법’ 즉 어떤 전략을 채택하거나 지향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삼각형에서 두변의 길이를 알아낸 다음에 각도를 추정하여 나머지 알지 못하는 한 변의 길이를 파악하려는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전략과 핵전략에 관한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북한 핵전략의 ‘목표’와 능력(‘수단’)을 정리하며, 제4장에서는 북한 핵전략의 내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략과 핵전략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전략과 구성요소

‘전략’(戰略: strategy)은 원래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총사령관(strategos)이 전체 군사력을 기동시키는 방법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대에는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전략가인 리델하트(B. H. Liddell Hart)는 전략을 “정책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사적 수단을 분배하고 적용하는 예술”로 정의한 바 있다. 미군도 전략은 “전구(戰區, theater) 차원, 국가차원, 다국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력의 요소들을 조정 및 통합된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한 건전한 생각 또는 생각의 세트”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군사력 운용의 개념이나 방향을 중요시하던 전통적 시각에 수단까지를 포함하는 서구식 합리주의가 가미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리델하트에 영향을 받아서 미 육군대학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였던 리케(Arthur Lykke, Jr.)가 공식화하였고, 지금까지도 미군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략의 설명방법은 “전략(Stratgy) = 목표(Ends) + 방법(Way) + 수단(Means)”이라는 방정식이다.⁸⁾ 이 방정식은 “목표 = 방법 + 수단”으로 더욱 단순화하기도 하는데,⁹⁾ 주어진 ‘목표’를 주어진 역량과 자원이란 ‘수단’ 그리고 방향을 의미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달성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설명한다.¹⁰⁾ 리케에 의하면 이 방정식에서 ‘목표’는 국가의 정책적 지침으로서 정치, 경제, 심리,

7)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as amended through 15 February 2016* (Washington D.C.: DoD, 8 November 2010), p. 227.

8) Lykke(2001), p. 179.

9) U.S. Joint Chief of Staff, Joint Operation Planning, *Joint Publication 5-0* (11 August 2011), p. III-7.

10) U.S. Joint Chief of Staff(2011), p. III-7.

군사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도부에서 제시한다. ‘방법’은 주어진 전략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course of action)으로서, 전진방어, 군사력 과시, 안보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고, ‘수단’은 군사력으로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반목적의 재래식 군대, 전략적 또는 전술적 수준의 핵무기, 현역과 예비군, 전쟁물자와 무기, 인력 등이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지원도 포함시킨다.¹¹⁾ 따라서 이 목표, 방법, 수단의 세가지를 통하여 전략의 필요한 요소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고, 균형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고 할 것이다.

전략에는 그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핵억제와 같이 상대방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전략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클라인(Ray Cline)은 국력(Pp) = 영토(C) + 경제력(E) + 군사력(M) × (전략(S) + 의지(W))라는 등식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곱셈으로 연결함으로써 의지가 없을 경우 아무리 높은 국력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특히 전략과 의지는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¹²⁾ 다만, 의지의 경우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주관적이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주로 전략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어서 수립 단계부터 고려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군의 경우에도 전략의 방정식에 의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들이 리케가 정립한 전략의 방정식을 계승하여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목표, 방법, 수단 간의 균형과 그러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조정 노력이다. 리케부터 이 세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국가안보가 “위기에 빠진다(in jeopardy)”고 경고하고 있고,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여 세가지 요소가 기우러진 상태를 ‘위험’(risk)으로 표시하면서 지도자가 특정 전략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위험까지도 확실하게 파악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복안을 가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¹³⁾ 따라서 평시에 특정 국가의 군대가 노력해야하는 것은 위 세가지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그것을 해결하여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다. 즉 불균형 상태에서 목표와 수단을 변경할 수 없을 때는 창의적인 ‘방법’을 발전시켜 방정식의 균형을 회복해야 하고, 목표와 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때는 그에 부합되는 ‘수단’을 보강해 나가야 하며, 방법과 수단을 변경할 수 없을 때는 ‘목표’를 그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 목표, 방법, 수단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고 한다고 가정하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두 가지만 알면 다른 한 가지는 계산하여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적의 전략을 파악하는 데 이 방정식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목표와 방법을 안다면 상대

11) Lykke(2001), pp. 181-182.

12) Ray S. Cline, World Power Assessment 1977: A Calculus of Strategic Drift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7), p. 34.

13) Lykke(2001), pp. 182-183.

방이 어떤 수단을 보강할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고, 상대방의 목표와 수단을 안다면 상대방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상대방의 전략개념을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을 상대방이 발표한 문서나 발언을 통하여 파악한다면 발표되는 내용 자체가 진실이 아닐 경우 기만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방의 목표는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고, 수단은 유형적인 부분이 많아서 착오의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목표와 수단을 파악한 후 이로부터 상대방의 방법 즉 전략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근본적인 방향은 쉽게 알아낼 수 있고, 상대방이 목표, 방법, 수단 간의 균형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봐야 한다.

2. 핵전략의 형태

핵전략의 형태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방향을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공격,’ ‘방어’ 그리고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억제’의 형태를 중심으로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적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방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류가 최초 적용한 핵전략은 재래식 무기와 다르지 않게 ‘공격’이었다. 미국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발의 핵무기를 투하하였고, 이로써 150,000명~246,000명 정도를 사망하게 만들었다.¹⁴⁾ 소련의 참전이라는 다른 요소도 작용하였지만, 이 2발의 핵공격은 그 이전에 사용된 수많은 재래식 전력보다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었다.

핵무기의 수량이 급증하자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절멸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핵전략은 상대방이 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抑制, deterrence)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이 공격(제1격, the first strike)할 경우 생존한 핵무기로 반격(제2격, the second strike)하여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개념으로 억제를 구현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핵전략의 기본을 형성하였다.¹⁵⁾ 그래서 양국은 다량의 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증강하였고, 학자들은 ‘mad’(미친)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상호확증파괴전

14) 허광무, 「한국인 원폭피해자(原爆被害者)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제6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04, 98쪽.

15) 함형필(2009), p. 95.

략”(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으로 불렸다.

동시에 핵무기의 경우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방어’도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억제 효과는 100% 확신하기 어렵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것이 국가안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한 다음해인 1950년 미국은 연방 민방위법(Federal Civil Defense Act)을 제정하고 연방 민방위청(FCDA: Federal Civil Defense Administration)을 창설하여 핵공격을 받더라도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를 시행하였고,¹⁶⁾ 소련과 유럽국가도 이에 따라 적극적인 민방위(civil defense) 활동을 전개하였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전략의 일반적인 형태로는 억제가 정착되었는데, 소규모 핵보유국은 미국과 소련이 적용해온 상화확증파괴전략을 변화시킨 최소억제(minimal or minimum deterrence)의 방식을 개발했다. 즉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몇 개의 표적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후 그것을 파괴시키겠다고 위협해도 상대방의 핵공격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고,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채택하였다.¹⁸⁾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15개와 300개와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만¹⁹⁾ 이것을 생존성이 월등한 SLBM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보복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로써 핵억제를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더욱 소규모 핵무기로 최소억제와 유사한 효과를 지향할 경우는 “신뢰적 최소억제”(credible minimum deterr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인도가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부터 발전시켜 2003년 공식화하였는데, 핵무기 사용의 의지와 능력, 보복의 효과성과 확실성, 필요한 정보와 생존능력 등을 과시함으로써 최소억제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는 개념이다.²⁰⁾ 파키스탄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여 다양한 핵무기를 생산함으로써 그들의 사용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²¹⁾ 다만, 이 신뢰적 최소억제전략은 사

16)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ask Force, *Civil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A short History of National Preparedness Effort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ep 2006), pp. 5-7.

17) 박휘락, 『소련군사전략연구』(서울: 법문사, 1987), p. 29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 핵 대피시설 구축 방안 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 연구과제, 건기연 2008-008(2008년 3월), p. 66.

18) Barry Nalebuff, “Minimal Nuclear Deterr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2, No. 3 (September 1988), p. 416.

19) Hans M. Kristensen and Robert S. Norris,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omepage. <http://fas.org/issues/nuclear-weapons/status-world-nuclear-forces/> (검색일: 2017. 7. 14).

20) Tanvi Kulkirni and Alankrita Sinha, “India's Credible Minimum Deterrence: A Decade Later.” *IPCS Issue Brief*, No. 179 (December 2011), p. 2.

21) Iftekhar Ahmed Chowdhury,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From 'Credible Minimum' to 'Full Spectrum,’” *ISAS Insight*, No. 295-11 (November 2015), p. 4.

용의지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전략의 개념이 모호해졌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약한 점이 있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수의 핵무기 보유 국가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더욱 소수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존재적 억제” 또는 “실존적 억제”(existential deterrence) 개념이 적용된다. 핵무기의 존재 자체만으로 상대가 전쟁을 발발할 수 없게 하여 억제효과를 보장한다는 주장이다.²³⁾ 이것은 최근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국가가 적용하는 억제방법으로서,²⁴⁾ 특히 핵개발 단계의 약소국이 모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핵강대국에 도전할 때 적용된다.²⁵⁾ 이 외에도 “휴식 억제”(recessed deterrence)나 “비무기화 억제”(non-weaponized deterrence)라는 말처럼 신속히 제조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으로도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론도 존재한다.²⁶⁾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도발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억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²⁷⁾ 이것은 상대방에게 도발을 자제하도록 동기(motivation)를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고, 호의적인 입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한다.²⁸⁾ 다만,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 채임벌린(Neville Chamberlain) 수상의 유화정책이 히틀러의 도발을 잠시 연기시키고 말았듯이 보상에 의한 억제는 지속적 효과를 확신하기가 어렵고, 국가의 자존심을 손상당하거나 상대방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냉전 시대의 미소 양국을 비롯하여 대치 상태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그 부작용을 알면서도 보상에 의한 억제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억제전략으로 채택할 정도로 공감대가 넓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3년 미국의 레이건(Ronald W. Reagan) 대통령은 핵전략에 일반적인 ‘방어’의 개념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전략적 방어제안”(Strategic Defense Initiative)으로 그는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기술적 어려움으로 이

22) Farah Zahra. “Credible Minimum Nuclear Deterrence in South Asia.” *IPRI Journal*, Vol. 12, No. 2 (Summer 2012), pp. 2-4.

23) Marc Trachtenberg. “The Influ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1 (Summer 1985), p. 139.

24) Rajesh Rajagopalan. “Nuclear strategy and small nuclear forces: The conceptual components.” *Strategic Analysis*, Vol. 23, No. 7 (1999), p. 1126.

25) 최정민(2014), p. 16.

26) Gaurav Kampani. “From Existential to Minimum Deterrence: Explaining India's Decision to Test.”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6, Issue 1 (Fall 1998), pp. 13-14.

27) 박휘락. 『전쟁·전략·군사 입문』(서울: 법문사, 2010), p. 226.

28) 이성훈. “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신억제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 21권 3호(2015), p. 129.

것은 오랫동안 지체되었으나 2004년 부시(George W. Bush, 아들) 대통령이 최초의 탄도 미사일방어체계(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점점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하여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44기 정도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Ground-based Interceptor)을 배치한 상태이고,²⁹⁾ 해외주둔 미군 방어를 위하여 SM-3 해상요격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지상요격미사일과 패트리어트(PAC-3)를 다층방어(multi-layered defense) 개념으로 배치해두고 있다.³⁰⁾ 미국의 BMD는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일본, 한국 등 다수의 우방국들에게 확산되고 있어,³¹⁾ 앞으로 핵전략에서 방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III. 북한의 핵전략 목표와 수단의 평가

북한은 외부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자위적 조치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핵무기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있고,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할 경우 위력이 크기는 하지만 핵무기는 무기의 하나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는 핵전략의 목표가 될 것이고, 현재의 핵능력은 그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 두가지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핵전략 목표

북한이 군사적 용도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핵전략의 목표는 북한 군사정책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인데,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군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이 지향하고 있는 “전한반도의 공산화”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

29)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Ground Midcourse Defense.” <http://missiledefenseadvocacy.org/missile-defense-systems-2/missile-defense-systems/u-s-deployed-intercept-systems/ground-based-midcourse-defense/> (검색일: 2017. 7. 14).

30) 자세한 사항은 U.S. Missile Defense Agency. “The Ballistic Missile System.” at: <http://www.mda.mil/system/system.html> (검색일: 2017. 7. 15).

31) 박휘락. “이스라엘, 일본,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비교와 한국에 대한 함의.” 『국제지역연구』 제20권 1호(2016), pp. 3-32.

까지 불변이다.³²⁾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이 바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이다. 즉 북한군은 외부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세계 보편적인 임무와 함께 한반도의 무력통일을 달성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³³⁾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남조선 혁명전략 실현”이고,³⁴⁾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은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고 봐야 한다.³⁵⁾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가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면 핵무기도 당연히 이에 기여해야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운용될 것이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 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선언하면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통하여 “다른 핵보유국”이나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³⁶⁾ 북한은 핵무기도 다른 재래식 무기와 동일하게 “당규약에서 규정한 한반도에서의 공산혁명 과업의 달성”의 수단으로 기능하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³⁷⁾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의 사용으로 위협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증대시킬수록 이러한 목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³⁸⁾

그런데 북한이 전 한반도 공산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최우선 과제는 미군의 철수이다. 그들에 의하면 남한은 미국의 하수인이고, 따라서 미군철수 및 이를 통한 한미동맹 철폐는

32) 이윤식.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형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2013), p. 213; 김강녕.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6권 3호(2015), p. 4.

33) 함택영. “북한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p. 31.

34) 김진하.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한미 반(反)북핵 독트린을 제안하며.” 『격변기의 안보와 국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30주년 기념 논문집(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p. 308.

35) 북한의 경제 및 사회적 취약점 때문에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국가정책목표 또는 군사정책 목표를 “체제 유지”로 낮췄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2011), p. 150. 그러나 최근의 수소폭탄 개발과 김정은의 공격적인 언동을 고려할 때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 공산화”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여전히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36)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할 데 대한 법.” 제2조. 4조, 5조. 권태영 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서울: 북코리아, 2014), p. 192.

37) 함형필(2009), p. 99.

38) 권태영 외(2014), p. 184.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전제조건인 셈이다.³⁹⁾ 그런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 핵전략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된다.

2. 북한의 핵능력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의 개발은 물론이고, 양적인 증강과 질적인 개선에도 성공하였다고 판단된다. 2017년 9월 3일 성공한 수소폭탄의 경우 한국에서는 50-60kt의 위력으로 평가하였으나 미국에서는 120kt, 일본에서는 160kt으로 평가하였고, 200kt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하는 국내 전문가도 있다.⁴⁰⁾ 그 이전에도 북핵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오고 있는 미국의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는 2016년 12월 현재 북한이 13-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 적이 있고,⁴¹⁾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홈페이지에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현황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10-20개로 표시하고 있다.⁴²⁾ 다수의 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 탄두중량 700kg)에 탑재하여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⁴³⁾

그렇다면 북한은 이러한 핵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최소한 1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300-700km 정도), 50기 정도의 노동미사일(1,300km 정도), 50기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2,000-4,000km) 보유하고 있다면,⁴⁴⁾ 한국의 전역이 핵공격의 범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면 그보다 탑재중량이 큰 스커드 미사일(스커드-B의 경우 1,000kg)에는 쉽게 탑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017년 5월 21일 “북극성-2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는데, 이것은 고체연료라서 5분 이내에 기습

39) 김진하(2017), p. 309.

40) 송호근. “수소폭탄 태풍 앞 ‘빈손’ 한국은 왜 이리 차분한가.” 『중앙일보』(2017년 9월 14일), p. 30.

41) David Albright.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Report (April 28, 2017), 1-3, <http://isis-online.org/isis-reports/detail/north-koreas-nuclear-capabilities-a-fresh-look/10> (검색일: 2017. 7. 15).

42) SIPRI Homepage, <https://www.sipri.org/> (검색일: 2017. 7. 15).

43) Elizabeth Phillip. “Resum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Nuclear Policy Brief*(June 24, 2016), p. 4; Mason Richey. “New Developments 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Implications for European Security.” *Policy/Brief*(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 2016/11 (May 2016), p. 2; Ian E. Rinehart and Mary Beth D. Nikitin.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RS Report*, R41259 (January 15, 2016), p. 12.

44)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2015), p. 19.

적인 공격도 가능한 상태이다.⁴⁵⁾

나아가 최근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구비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2017년 5월 14일에는 '화성-12형'을 최대정점고도 2,111.5km까지 상승하여 787km 비행시켰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비행했다면 미국의 알래스카(서울로부터 앵커리지까지 5,600km), 하와이(서울로부터 호놀룰루까지 7,100km)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⁴⁶⁾ 2017년 7월 4일 "화성-14형" 로켓의 발사에 성공한 후 북한 스스로 "특별보도"를 통하여 대륙간탄도탄(ICBM)의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고,⁴⁷⁾ 7월 28일에는 그보다 더욱 강력하게 발사하여 최대 정점 고도 3724.9km로 998km까지 비행함으로써 "LA, 덴버, 시카고는 물론이고, 뉴욕과 보스톤"에도 닿을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⁴⁸⁾ 그리고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그들의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 4,475km에 도달한 후 950km를 비행시킨 후 ICBM 개발의 성공을 선언하였고,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하였다.

또한 북한은 보복의 확실성이 가장 큰 SLBM의 개발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2016년 8월 24일 동해상에서 SLBM을 500km를 비행시켰는데, 정상 각도로 쏘았다면 최대 2500km까지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⁴⁹⁾ SLBM이 개발될 경우 북한은 한국, 일본, 괌 등을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데 성공할 경우 미 본토에 대해서도 기습적인 SLBM 공격이 가능할 수 있다.

3. 평가

공산주의 국가의 경우 대부분 국가=당=군대이고, 특히 이 중에서 군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선군정치"라는 구호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이러한 성향은 북한에서는 더욱 강력하다.⁵⁰⁾ 북한군을 실제로 통제하는 것은 한국의 국방부/합참에 해당되는 인민무력부/총참모부가 아니라 군에 대한 정치의 지도를 담당하는 '총정치국'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⁵¹⁾ 북한의 경우 정치와 군사 간의 일체성이 강하고, 국가=당=군대의 공통목표라고

45) "발사에 단 5분, 주일美기지 사정권..." 『조선일보』(2017. 5. 22), p. A6.

46) "북 '화성-12 목표는 하와이·알래스카' 공개." 『연합뉴스』(2017. 5. 22).

47) "김정은 'ICBM 쏘다'... 美독립기념일에 협박." 『조선일보』(2017. 7. 5), p. A1.

48) "뉴욕까지 사정권... '北核 게임' 바뀌었다." 『조선일보』(2017. 7. 31), p. A1.

49) "죽기살기식 올인...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손에 쥔 김정은." 실전배치." 『조선일보』(2016. 8. 25), p. A1.

50) 이대근. "당·군관계와 선군정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p. 179.

할 수 있는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수단도 군대이며,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만 있다면 핵무기가 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구비하고 있는 핵능력은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판단된다.

북한이 수소폭탄과 ICBM을 개발함으로써 남한과의 대결에 필요한 이상으로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핵무기의 개발 목적이 체제유지나 내부결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협상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협상의 주제가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거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하여 핵무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을 철수시키고, 연방제통일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⁵²⁾ 실제로 수소폭탄 성공 이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비핵국가인 한국을 압도할 수 있고, 그러면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목표 달성은 그다지 쉽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북한 핵전략의 일차적인 대상은 미국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공격’이거나 ‘방어’일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막강한 핵능력을 고려할 때 자멸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기는 어렵고, 북한은 방어를 위한 BMD 구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로 보복을 할 수 없도록 “억제”하고자 한다고 봐야 한다.⁵³⁾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SLBM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억제전략의 일환이지, 공격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만 폐기되면 핵무기로 비핵무기인 한국과의 통일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대상으로 한 핵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다만, 그러한 위협이 통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북한은 개발된 핵무기를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⁵⁴⁾ 북한이 6·25전쟁과

51) 최광표. “북한군의 군사조직과 병역제도.” 남만권 편. 『북한 군사체제: 평가와 전망』(서울: KIDA Press, 2006), p. 71.

52) 김진하(2017), p. 322.

53) 함형필(2009), p. 103.

같은 방식의 재래식 남침을 감행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활용할 것이다.⁵⁵⁾ 따라서 공격, 방어, 억제라는 세가지 핵전략의 목표 중에서 선택을 하자면 한국에 대해서는 ‘공격’일 것이고, 그의 주된 내용을 위협과 사용일 것이다.

IV. 북한의 핵전략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핵전략의 일차적인 대상은 미국의 유사시 북한 응징보복을 억제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의 위협과 사용이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대(對) 미국: 신뢰적 최소억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활용하여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당=국가=군사 목표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평시에 북한은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통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자신의 초도화를 각오하면서 미국의 어느 도시에 핵공격을 가한다고 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평화협정을 수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1990년대부터 핵무장과 평화협정을 연계해왔고, 북핵 능력이 강화되는 최근에는 이러한 대미압박이 더욱 직접적이면서 과감해지고 있다.⁵⁶⁾ 북한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대하여 수소폭탄, ICBM, SLBM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전형적인 ‘최소억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최소억제전략은 평시는 물론이고 전시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을 통하여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대규모 핵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국에게 확장억제를 시행하면 미국의 주요 도시에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확장억제를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54) 권태영 외(2014), p. 185.

55) 전호환. “북한 핵무기 보유시 군사전략의 변화 가능성과 전망.” 『군사논단』 제52호(2007년 겨울), pp. 60-62.

56) 김진하(2017), pp. 322-323.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최소억제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얼마 전까지도 상당수의 학자들은 북한이 실존적 억제능력은 구비했지만 최소억제 수준에는 미달한다고 평가하였지만,⁵⁷⁾ 2017년에 들어서 수소폭탄 실험과 ICBM에 근접한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시험발사로 최소억제 능력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완전한 ICBM 능력은 구비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최소억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⁵⁸⁾ 이론적으로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의 최소억제를 구현하려면 핵추진 잠수함을 3-4척을 구비해야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 다수의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괌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는 현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내에 있어서 초보적인 최소억제 능력은 구비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신뢰적 최소억제”라고 볼 수도 있다. 최소억제에 미달하는 능력을 적극적인 공격의사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2017년 5월 14일 화성-12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 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 미국이 우리를 선불리 건드린다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며,⁵⁹⁾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에도 유사한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을 비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응하여 김정은은 2017년 9월 21일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원색적으로 위협하기도 하였다.

미국이 완벽한 BMD를 구축해버리면 북한의 최소억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지상요격미사일을 44기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5월 30일에는 북한의 ICBM을 가상한 실제 요격시험도 실시하였으며,⁶⁰⁾ 2017년 7월에 북한의 중거리미사일로부터 알래스카 방어하기 위한 THAAD 요격훈련을 2회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기지 이외에도 북한은 미군이 집중적으로 주둔하고 있

57) 최정민(2014), pp. 28-29; 김태현(2015), p. 17.

58) 최정민(2014), p. 31.

59) “준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쏜 김정은 ‘美 본토 타격권.’ 『조선일보』(2017. 5. 16), p. A1.

60) MDAA.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http://missiledefenseadvocacy.org/missile-defense-systems-2/missile-defense-systems/u-s-deployed-intercept-systems/ground-based-midcourse-defense/> (검색일: 2017. 7. 3).

는 오키나와(평양에서 1,500km)를 노동미사일이나 북극성-2형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미군의 영토이면서 주요 군사기지인 괌(3,400km)과 알래스카(6,000km)는 화성-12형, 하와이(7,600km)는 화성-14형으로 공격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SM-3 해상요격미사일과 THAAD로 괌, 알래스카, 하와이를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신뢰적 최소억제는 이미 기능하고 있고,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할수록 그 위력은 커질 것이다. 이러한 최소억제는 어느 정도 작동하여 이미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대북협상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⁶¹⁾

2. 대(對) 한국: 위협과 잠재적 사용

북한의 당=국가=군사의 목표가 ‘전 한반도 공산화’라면 남한이 통일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한국을 파괴시키기 보다는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통하여 그들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비롯하여 한국에게 정책적 양보를 강요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공격한 후 한미연합군 또는 한국군의 반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미동맹이 폐기될 경우 이와 같은 시도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은 대남 핵전략의 시행보다는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전략의 구현에 노력하고 있고, 따라서 그들의 발표내용에서 대남 핵전략의 내용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대남 핵전략을 추정해보면 북한은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기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⁶²⁾ 핵보유국은 비핵국가에 비해 “전략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되고,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의 공갈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⁶³⁾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 것이냐는 것은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처음에는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점점 요구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고, 결국은 다양한 내정간섭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 내에서 핵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질 경우 한국 정부의 대안은 더욱 제한될 것이고, 그럴수록 북한의 입지는 강화될 것이다.⁶⁴⁾

북한은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재래식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추구해온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⁶⁵⁾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61) 김지하(2017), pp. 326-330.

62) 권태영 외(2014), p. 193.

63) 우평균. “북핵의 정치적 효과와 대남전략: 비대칭적 상황에서의 전략 추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4호, p. 197.

64) 우평균(2016), p. 206.

65)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 23.

즉 현재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수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공격의 시간, 장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한미연합군의 질적 우위와 막강한 전쟁지속력을 고려할 경우 6.25전쟁에서와 같이 장기화되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재래식 전력으로 속전속결을 추구하면서 한미연합군 또는 한국군의 반격을 봉쇄하거나 불리해졌을 때 상황을 반전시키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즉 “핵위협하 기습적 재래식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북한은 평시에 “핵위협하 국지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북도서에 기습적으로 상륙하여 점령한 후 한국이나 한미연합군이 반격하거나 보복공격을 가하면 한국의 주요 군부대나 도시에 핵무기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식이다.⁶⁶⁾ 이 경우 한국에서는 탈환작전의 시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전개할 것이나 원거리 군사작전의 어려움과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하여 타협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제한적 군사작전이 성공을 거둘 경우 북한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의 소극적 대응이 반복될 경우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자유자재로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⁶⁷⁾

핵무기에 의한 위협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제적으로 한국의 주요 도시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량의 살상도 개의하지 않는 북한은 인구밀집지역에 핵무기를 투하하여 한국을 극심한 혼란과 공황상태에 빠뜨리면 큰 어려움없이 남한 전체를 석권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집권 후 소위 “7일 전쟁” 계획을 만들었는데, 핵심내용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7일 만에 남한은 점령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⁶⁸⁾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도 논의에서 배제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북한의 핵전략에서 일차적인 대상은 미국이고,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북한이 대남용 핵전략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여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정립해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는 그의 사용위협으로 재래식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지만,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여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이 불안해질수록 북한의 공격적인 핵사용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⁶⁹⁾

66) 권태영 외(2014), p. 194; 전호훤(2007), p. 60.

67) 우평균(2016), p. 202.

68) 김강녕(2015), p. 3.; 홍우택. “북한의 국가성향 분석과 모의 분석을 통한 핵전략 검증.” 『국방정책연구』 제 32권, 4호(2016), p. 98.

69) 홍우택(2016), pp. 109-110.

V. 결론

핵무기는 워낙 참혹한 피해를 결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식하듯이 북한이 자위권이나 체제유지와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인 접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 의도는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수소폭탄과 ICBM을 개발함에 따라 공세적이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당=국가=군사의 공통된 목표로 “전 한반도 공산화”를 추구해왔는데, 그의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군들이 사용하는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이라는 방정식 중에서 ‘목표’와 ‘수단’(북한의 핵능력)을 확정된 후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도출함으로써 북한의 핵전략을 파악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핵전략에서는 대미국 전략이 일차적이라는 사실과 “신뢰적 최소억제” 전략을 통하여 평시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강요하고, 전시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군을 한국에서 몰아낸 다음 그들이 주장해 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강요하거나 핵위협 하 재래식 기습공격으로 그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최근 북한은 수소폭탄과 ICBM 능력을 입증한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대미공격력을 제외한 북한의 핵동결을 교환하는 미북평화협정을 강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인사들도 이 조건을 논의함으로써 북한의 ‘신뢰적 최소억제’는 이미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상태에서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물론 괌을 비롯한 서태평양의 미국 영토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고, 본토 공격의 잠재력도 과시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공격적 사용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미국의 상당수 인사들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이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적 대안 선택에 소극적인 것 자체가 북한의 신뢰적 최소억제가 기능하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이 ICBM과 SLBM의 능력을 향상시킬수록 신뢰적 최소억제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평화협정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어떤 핵전략을 채택할 것인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핵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대폭적으로 강화함은 물론, 미국과의 정책적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이 요망하는 동맹이완(decoupl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을 통하여 미국이 확

장역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탄도미사일방어 체제를 신속하게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핵폭발 시의 생존을 위한 핵민방위(nuclear civil defense)도 시행함으로써 결사항전의 의지와 태세를 강화하고, 이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으면 한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을 과시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고, 그럴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참고 문헌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6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서울: 국방대학교, 2016).
-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 권태영 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서울: 북코리아, 2014).
- 김강녕.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6권 3호(2015).
- 김성철. “북한의 핵억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5권 4호(2014).
- 김진하.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한미 반(反)북핵 독트린을 제안하며.” 『격변기의 안보와 국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30주년 기념 논문집(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 김태현. “북한의 핵전략: 적극적 실존억제.”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 박창권.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제104권 0호(2014).
- 박휘락. 『소련군사전략연구』(서울: 법문사, 1987).
- _____. 『전쟁·전략·군사 입문』(서울: 법문사, 2010).
- _____. “이스라엘, 일본,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비교와 한국에 대한 함의.” 『국제지역연구』 제20권 1호(2016).
- _____. “제7차 당대회 후 북한의 대남 군사정책 전망.” 『통일전략』 제16권 3호(2017).
- 우승지. “2,13합의 이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에 대한 분석.” 『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제1호(2017).
- 우평균. “북핵의 정치적 효과와 대남전략: 비대칭적 상황에서의 전략 추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4권 4호, (2016).
- 이계만·윤황. “북한의 핵문제 본질과 핵전략·외교전략에 관한 평가.” 『평화학연구』 8권 3호 (2007).
- 이대근. “당·군관계와 선군정치.”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 이미숙. “군사협상과 군사도발 병행 행태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2011).
- 이성훈. “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신억제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1권 3호(2015).
- 이승철·오일환. “북한의 핵전략 분석과 한국의 대북,대중,대러 전략 방향 모색.” 『중소연구』 제29권 4호(2006).

- 이윤식.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형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2013).
- 이현경. “북한의 핵전략과 북,미간 타협: 원론적 타결과 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권 2호(2005).
- 전호원. “북한 핵무기 보유시 군사전략의 변화 가능성과 전망.” 『군사논단』 제52호(2007).
- 최광표. “북한군의 군사조직과 병역제도.” 남만권 편. 『북한 군사체제: 평가와 전망』(서울: KIDA Press, 2006).
- 최정민. “북한 핵 억제전략 연구를 통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방향 제시.” 『군사논단』 제77호 (2014).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 핵 대피시설 구축 방안 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 연구과제, 건기연 2008-008(2008. 3).
- 함택영. “북한군사연구 서설: 국가안보와 조선인민군.”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 『북한 군사문제의 재조명』(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 함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84권 0호(2009).
- 허광무. “한국인 원폭피해자(原爆被害者)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제 6호(2004).
- 홍우택. “북한의 국가성향 분석과 모의 분석을 통한 핵전략 검증.” 『국방정책연구』 제32권 4호(2016).
- Albright, David.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 Fresh Look.”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Report* (April 28, 2017), <http://isis-online.org/isis-reports/detail/north-koreas-nuclear-capabilities-a-fresh-look/10>.
- Bermudez, Joseph S. Jr. “North Korea’s SINPO-class Sub: New Evidence of Possible Vertical Missile Launch Tubes; Sinpo Shipyard Prepares for Significant Naval Construction Program.” *Informed Analysis Events in and around the DPRK*, 2015, <http://38north.org/2015/01/jbermudez010815/>
- Cheng, Jonathan. “North Korea’s ‘several paths’ to a viable nuclear strik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6, 2017).
- Chowdhury, Iftekhar Ahmed.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From 'Credible Minimum' to 'Full Spectrum,’” *ISAS Insight*, No. 295-11 (November 2015).
- Clausewitz, Carl von, *On War*,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trans., indexed E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4.

- Cline, Ray S. *World Power Assessment 1977: A Calculus of Strategic Drift*,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7.
-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as amended through 15 February 2016*, Washington D.C.: DoD, 8 November, 2016.
-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DoD, 2015.
- Hart, B. H. Liddell, *Strategy*, 2nd revised edition, New York: Penguin Group, 1991.
-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ask Force, *Civil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A short History of National Preparedness Effort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06.
- Kampani, Gaurav. "From Existential to Minimum Deterrence: Explaining India's Decision to Test." *The Nonproliferation Review*, Vol. 6, Issue 1 (Fall 1998).
- Kristensen, Hans M, and Norris, Robert S.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omepage*, <http://fas.org/issues/nuclear-weapons/status-world-nuclear-forces/>
- Kulkirni, Tanvi and Sinha, Alankrita, "India's Credible Minimum Deterrence: A Decade Later." *IPCS Issue Brief*, No. 179 (December 2011).
- Lykke, Arthur F. Jr.. "Toward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U.S. Army War College Guide to Strategy*, Carlisle: Army War College,
- Nalebuff, Barry. "Minumal Nuclear Deterr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2, No. 3 (1988).
- Phillip, Elizabeth, "Resum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Nuclear Policy Brief* (June 24, 2016).
- Rajagopalan, Rajesh. "Nuclear strategy and small nuclear forces: The conceptual components." *Strategic Analysis*, Vol. 23 No. 7 (1999).
- Richey, Mason. "New Developments i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Implications for European Security." *Policy/Brief*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 2016/11 (May 2016).
- Rinehart, Ian E. and Nikitin, Mary Beth D..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RS Report*, R41259 (January 15, 2016).

- Sauer, Tom, *Eliminating Nuclear Weapons: The Role of Missile Defense* (London: Hurst & Co, 2011).
- Schilling, John. "What is True and Not True About North Korea's Hwasong-14 ICBM: A Technical Evaluation." 38 North (July 10, 2017), <http://www.38north.org/2017/07/jschilling071017/>
- Schilling, John. "A New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for North Korea." *Informed Analysis Events in and around the DPRK*, 2016, <http://38north.org/2016/04/jschilling042516/>
- Trachtenberg, Marc, "The Influ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0 No. 1 (Summer 1985).
- U.S. Joint Chief of Staff, *Joint Operation Planning*, Joint Publication 5-0, Washington D.C.: DoD (11 August, 2011).
- Zahra, Farah. "Credible Minimum Nuclear Deterrence in South Asia." *IPRI Journal* Vol. 12, No. 2 (Summer 2012).

An analysis on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in Military Use: Application of "Strategy = Ends + Ways + Means" Equation

Park, Hwee-rhak

Key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Weapon,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Extended Deterrence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out the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in light of its steep build-up of nuclear capabiliti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For this purpose, it uses the equation of strategy, that is "Strategy = Ends + Ways + Means." If we could identify North Korean Ends and Means in its nuclear development, we could determine the Ways out of these Ends and Ways.

The Ends of North Korean nuclear strategy seem to be "the communization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Ends of North Korea and its military as well. North Korea has 13-30 nuclear weapons and various long-range missiles to attack the U.S.

This paper concluded that North Korea employed "credible minimum deterrence" to the U.S. and "limited use with threat" to South Korea based on above Ends and Means. Therefore, North Korea could provoke limited and/or all-out conventional war with threat of nuclear attack, compel South Korean policy changes with the threat and strike a few South Korean cities with several nuclear bombs. As North Korea reinforces its capabilities to attack the mainland U.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nuclear attack would increase.

[논문투고일 : 2017. 07. 29]

[심사의뢰일 : 2017. 09. 06]

[게재확정일 : 2017. 10. 24]